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지역문화 창조포럼

영남권 부산

지역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

2012.
11.05.
MON

place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부산문화재단 주관 2012 ARKO 미래전략포럼 준비소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지역문화 창조포럼

영남권 부산

지역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

2012.
11.05.
MON

place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부산문화재단 주관 2012 ARKO 미래전략포럼 준비소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PROGRAM

지역문화 창조포럼 영남권(부산)

지역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

일시 : 2012년 11월 5일(월) 14:00~16:40

장소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1부

14:00–15:20

사 회	임 호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 회 14:00–14:30	개회사 및 오프닝 공연(악樂상相 프로젝트의 '사랑방 음악회')
발제 1 14:30–14:55	**청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발전전략 :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욱 부산청년문화수도 집행위원장
발제 2 14:55–15:20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컬(glocal) 지역협력체계 구축 : 부산 문화예술, 지역과 세계를 넘는 길**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장
Intermission 15:20~15:35	

2부

15:35–16:35

종합 토론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과 지역문화협력체계 구축 방안** 임 호 (진행)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원명 경성대학교 교수, 음악평론가 김현정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정책위원장 민병욱 부산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최학림 부산일보 논설위원 황해순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Future Strategy FORU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ARKO

지역문화 창조포럼-영남권(부산)

목차 CONTENTS

03 **프로그램**

07 **1부**

09 **발제 1** 청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발전전략 :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욱 부산청년문화수도 집행위원장

17 **발제 2**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컬(glocal) 지역협력체계 구축 : 부산 문화예술, 지역과 세계를 넘는 길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장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공개행사 프로세스

대 토 론 회	창의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	10.17(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정책세미나	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전망	10.24(수)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전문가포럼	새로운 문화예술, 통섭과 융합	10.26(금)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지 역 포 럼	지역문화창조	10.30(화)~11.5(월) 대전, 광주, 부산(3회)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지역문화 창조포럼 영남권(부산)

지역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



1부



발제 1

청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발전전략 :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욱 부산청년문화수도 집행위원장

발제 2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컬(glocal) 지역협력체계 구축 :
부산 문화예술, 지역과 세계를 넘는 길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장

1부

발제 1

청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발전전략 :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욱 부산청년문화수도 집행위원장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산업기반이 쇠퇴한 지역에서 상징이나 슬로건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도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이 장소마케팅이란 개념 아래 시도되었다. 최근에는 찰스 랜드리, 리처드 플로리다, 사사키 마사유키 등의 창조도시 이론이 소개되면서 문화와 창의성, 창조인력을 기반으로 도시와 지역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들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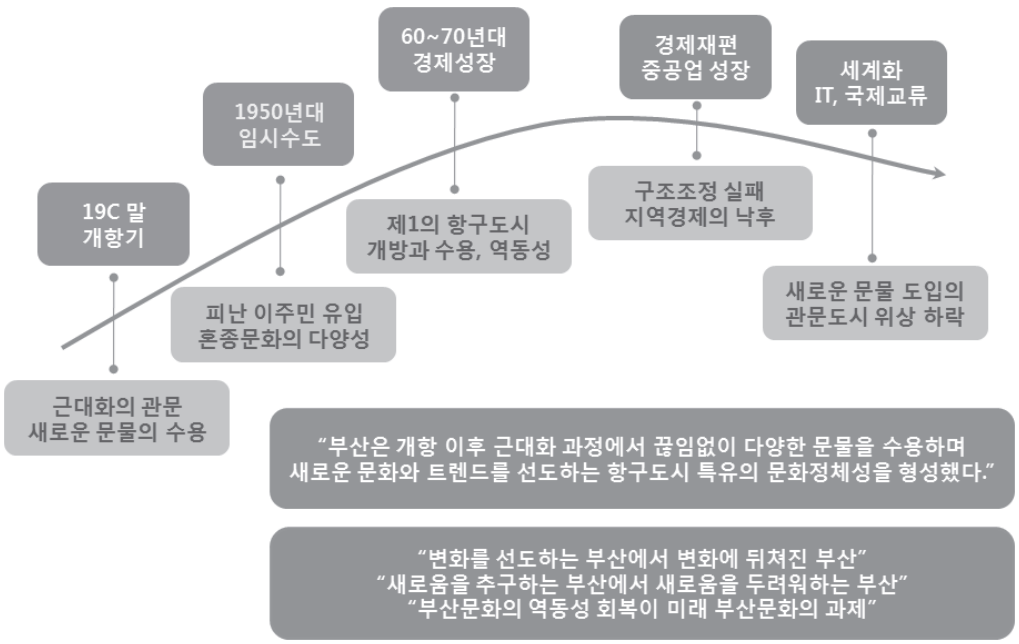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민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문화나 예술을 단순히 도구로 여기는 관점을 넘어 지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숙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 글은 최근 진행된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청년문화의 다양한 실천들이 어떻게 부산 문화, 나아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의 배경 : 개방과 교류의 도시, 부산 문화의 청년성

최근 부산의 청년문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작년 부산대학교 일대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회춘프로젝트'가 그 단초를 마련했다. 2011년 회춘프로젝트는 부산문화재단의 공공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재기는 넘치지만 경험이 부족한 청년문화 활동가들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을 불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1년 7월부터 시작된 회춘프로젝트는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청년문화단체들이 개최하는 '온천천 문화 살롱', 말 그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0일 릴레이 거리공연', '공연배달 서비스', '네트워크 페스티벌'과 같은 다양한 문화이벤트, '사운드 퍼니처', '스트리트아트'와 같은 거리공공예술, 8개 주제에 걸친 '네트워크 워크숍' 등을 연속으로 개최하여 부산 문화에 젊은 생기를 불어 넣은 청년문화의 상상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올해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는 작년

회춘프로젝트에 이어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는 청년세대나 그 문화가 기성문화와 대별되는, 그래서 문화의 미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주장을 넘어 청년문화가 부산문화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부산은 19세기 개항과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한 근대도시이다. 근대 이전 부산은 변방에 위치한 작은 포구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부산에 왜관이 설치된 것도 이 지역이 바다와 산으로 막혀 다른 지역과 격리된 입지 때문에 선택될 수 있었다. 개항 이후 식민지 근대화의 굴곡진 과정이긴 하지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관문도시로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부산은 이미 거주민 가운데 일본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거주민들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나들 만큼 일찍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한국전쟁의 시기 피난민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부산은 인구의 급속한 증대와 더불어 도시의 급속한 팽창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도시의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이주민을 통해 유입된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이면서 부산의 문화적 지형과 기질 또한 변화하였다.



전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도 부산이 국내 최대 항구물류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며 성장하는 배경을 이루었다.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주한미군의 보급기지인 캠프 하얄리아의 입지 등으로 일찍부터 외래물품들이 유통되는 국제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보수동 책방거리에서는 외국서적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문화 수입이 금지되었던 시기에도 부산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본TV를 시청하였다. 지리적 이점과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부산에서는 일본을 통한 해외 방문과 교류가 빈번히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은 일본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의 새로운 문물을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수용하고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부산이라는 도시의 형성과 발전 자체가 개항과 더불어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면서 이루어졌다. 기껏해야 100년 남짓한 도시 역사를 가진 부산은 한편으로 전통과 뿌리가 없는 도시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새로운 문물을 장벽 없이 받아들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기질을 형성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극심하기 이전인 70, 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의 전파, 발원지였고 특히 대중문화, 청년문화의 견인차와 같은 역할은 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실험적인 청년비엔날레가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오늘날 부산 비엔날레의 전신을 형성한 것이나 1990년대 국내 인디음악과 비보이 문화의 주요한 흐름이 부산에서 활발하게 생성되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는 이러한 부산문화의 청년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문화의 실험과 상상력이 모이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청년문화의 중심지로서 부산문화의 미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의 개요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는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독립문화공간 아지트), 부산 노리단, 생활기획공간 통 등 부산 지역의 대표적 청

년문화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획하였고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 등 국내의 다른 지역과 홍콩, 도쿄, 후쿠오카, 상하이, 베를린, 뉴욕 등 해외의 여러 문화단체, 젊은 예술가들과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광안리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발, 거리예술-그래피티 부산, 청년문화아카데미 등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①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발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발은 록, 힙합,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하위 장르의 음악공연, 무용과 퍼포먼스, 비디오아트 등이 결합된 복합청년문화축제로 기획되었다. 행사는 2012년 8월18일과 19일 이틀간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이 축제는 DJ 중심의 일렉트로닉 음악, 다양한 퍼포먼스와 영상이 결합된 복합공연 일렉트로닉 박스, 록, 힙합,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릴레이 음악공연 사운드박스, 민락동 수변 공원에서 진행된 다양한 어쿠스틱 거리공연 워터박스, 다양한 청년문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관객 참여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아트마켓 컬쳐웨이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축제에는 스카웨이커즈(부산), 힙합그룹 킬라몽

키즈, DJ JU, 부산 노리단, 엠노트 등 부산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과 3호선 버터플라이, 비빔덥트리오, 춤패 가관, Uprooted Sunshine Sound System(Shanghai), Mr. J(Hong Kong), Band Spooky(Fukuoka), DJ EM(Bangkok), DJ Brenmar(New York) 등 40개가 넘은 국내, 해외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② 거리예술 : 그래피티부산

그래피티 부산은 도심의 거리의 낙서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현대미술 장르로 발전한 그래피티를 통해 도심공간에 문화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리예술 프로젝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래피티는 1960년 미국 동부의 흑인 젊은이들이 건물 외벽이나 지하철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자신의 이름이나 구호, 캐릭터 등을 그리면서 시작되었다. 도심의 뒷골목 문화로 출발한 그래피티는 서구에서는 80년대 장 미쉘 바스키아, 키스 헤링 등의 작가를 통해 현대미술의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래피티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낮은 편이다. 그래피티 부산 프로젝트는 독일 출신의 그래피티 작가 ECB(Hendrik Beikirch)와 한국의 Kay2(구헌주)가 참가하여 광안리 지역에서 대형 그래피티 작업을 진행하였다. ECB는 민락동 수변공원 인근 가로 7m 높이 56m의 주차타워 외벽에 나이든 어부의 모습을 그렸다. Kay2는 남천동 광남초등학교 인근 가로 20m 높이 12m 담장에 돋보기를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커다란 아이의 모습을 그렸다.





③ 청년문화아카데미

부산 문화예술계를 말할 때 젊은 문화매개인력의 부족이 항상 거론된다. 몇몇 대학에서 관련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부산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문화기획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청년문화아카데미는 4개월 동안 문화예술의 이해, 예술경영의 이론과 실제, 상상력 및 감성 개발 등 폭넓은 주제에 걸친 강의와 아이디어 개발에서 현장 실무까지 담아내는 전문워크숍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문화예술 매개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50여명의 현장 인력 및 예비 기획자들이 참가하여 지난 8월말에 시작되었고 12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상상력이 넘치는 미래의 문화도시를 위한 실험,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하위문화로서 청년문화는 단지 물리적 연령에 기초하여 세대문화로만 정의할 수 없다. 청년문화는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청년의 특성, 기성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태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는 이러한 청년문화의 창의적 상상력을 당위로서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그 역할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부

발제 2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컬(glocal) 지역협력체계 구축: 부산 문화예술, 지역과 세계를 넘는 길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장

I. 국제문화교류의 환경변화

글로벌 시대의 문화교류는 과거의 문화적 강요와 강압에 의한 제국주의적인 문화교류에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교류, 향유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교류로 이전되고 있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배경으로 아시아에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K-Pop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현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디어의 보급과 확산은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서 실시간, 쌍방향의 자유로운 문화교류와 소통의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유튜브를 타고 세계인들에게 K-POP에 열광하게 만든 싸이 열풍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대중문화 중심의 문화교류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를 통한 세계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감성을 길러야 한다는 비판들도 있다.

국가 간 교류를 넘어 도시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이유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 간 상호 공감과 공유, 문화적 교감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확립이 그 계기가 되고 있다. 점진적인 네트워크사회로의 진입은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교류와 국제간 교류사업도 도시 간(local to local) 교류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시권(MCR) 성장전략, 독자적 발전전략, 도시국가 논의 등 자생적 도시발전의 스펙트럼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동남권(울산, 경남을 포함)의 대도시권 형성을 넘어서 일본의 후쿠오카를 비롯한 큐슈지역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광역권 간의 국경을 초월한 도시 간 협력체계인 초국경경제권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중심의 수도권 확장에 따른 지역의 블랙홀 현상을 극복함과 동시에 지역 간 협력 사업을 통한 부산의 미래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제협력과 문화교류사업은 도시 간(local to local) 상호협력을 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교류사업의 수평적 네트워크는 정부(지방정부 포함)주도의 협력과 교류 사업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중심의 정책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국제문화교류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의 문화교류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Ⅱ. 국제문화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차원의 국제문화 교류 현황

문화부의 문화교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규정(2008.11.13 훈령 제48호)'에 의거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2011년~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교류의 3대원칙은 쌍방향 문화교류, 상호주의 선택과 집중이며, 문화교류 3대 방향으로 문화교류 다변화,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 마련,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기회로 국립단체의 창작역량 및 해외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우수민간단체 발굴 및 해외진출 기회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문화부 국제문화교류 예산규모는 3,168억이며, 이중 스포츠분야가 약 60%인 1,91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문화홍보 561억, 문화산업 417억 원의 순이었고, 문화예술교류173억, 전통문화교류 49억 원이다. 이와 별도로 〈표2〉와 같이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도 이들 기관의 교류지원사업 예산은 문화예술위원회 55억3천9백만 원, 한국국제교류재단 79억5천4백만 원이었다. (정정숙, 2012).

〈표 1〉 주요 공공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종류 및 사업 내역

기관	구분	사업
문화예술위원회 (ARKO)	문화예술 교류	국제예술교류지원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해외예술인초청기획프로그램,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 노마딕예술가레지던스프로그램

기관	구분	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류	해외진출지원: 공연예술작품의 해외전략거점 지출지원,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사업,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역량강화 : 국제협력 우수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 해외 기관 공동 협력 사업 지식정보화: 포털사이트 theApro.kr 운영, 국내외 예술관련 기관·매체 협력 지식정보서울아트마켓(PAMS)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	문화예술교류협력, 문화센터 운영
	문화홍보	미디어, 한국학 기반확대, 한국 전문가 육성, 인사교류, 국제협력네트워킹

*정정숙, 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보완 작성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서울아트마켓(PAMS)이다. 매년 국내외 예술가, 예술단체, 공연기획자를 한자리에 모아 세계 예술 경향을 읽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팸스 초이스를 통해 우수한 국내 공연 작품을 외국 기획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작품은 항공료, 쇼케이스 자막 번역, 통합 홍보물 제작, 외국 진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17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총 500여 회에 걸쳐 외국 공연을 펼쳤다.

2. 부산지역 문화교류사업 현황

부산지역 국제교류사업은 부산시의 경우 문화관광국과 국제협력과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류사업과 국제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국제행사 개최 등이며, 국제협력과는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 국제회의 유치, 외국인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제협력네트워킹, 해외봉사단 파견, 외국인지원, 유학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기관	구분	사업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 교류	시립예술단 문화교류, 국제회의유치, 문화관광프로그램, 국제행사(영화제, 비엔날레 등)
국제협력과	문화교류	국제협력, 국제회의유치,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
부산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 홍보	국제협력네트워킹, 해외봉사단 파견, 유학생, 외국인지원(축제개최), 유학생 지원 등

* 사업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부산문화재단의 국제문화교류사업(〈표3〉 참조)은 아시아레지던시파견사업,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新조선통신사 : 조선통신사의 부활"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청소년 역사아트 캠프, 연고도시 관련 사례 포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일 공동 등재 추진, 그리고 교부금지원사업(지역문예육성사업 중 국제문화교류지원/레지던시지원사업/창작공간지원사업(또따또가/아트팩토리인다대포)/왔다갔다페스티발),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Connection Box in Europe〉등이 있다. 2012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예산은 14억9천6백만 원이다.

〈표 3〉 2012년 부산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사업

구분	사업	예산(단위: 백만 원)
문화예술교류	○ 아시아레지던시파견사업/아시아5개국 ○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행사 ○ 21세기 신조선통신사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일 공동 등재사업 – 조선통신사 레지던시 원류를 찾아서 – 조선통신사 한일 청소년 아트캠프 ○ Connection Box in Europe(영국현지) ○ 지역육성사업/레지던시지원사업 ○ 지역육성사업/국제교류지원 ○ 상주단체지원사업/레지던시 ○ 창작공간지원사업/WATAGATA ARTS FESTIVAL	100 702 243 63 90 90(교육청1:1매칭) 100 200 63 50 20
계	8개 사업	1,496

* 부산문화재단 자료(2012)

3. 국제문화교류의 문제점

국제문화교류의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나 지방정부의 수교국이나 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외교적 협정 등을 위한 도구적인 목적으로 문화교류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예산이나 정부의 기관활동을 보면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문화수요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이나 기호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문화예술인의 문화 활동을 통한 교류보다는 수교국가(또는 도시)의 '자국 문화보여주기식' 문화행사로 진행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소외 현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부나 지방정부의 문화국은 지원에 대한 간섭이나 지원내용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부처의 고유권한과 정책목표 수행의 체계와 맞물려 부서 간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국제문화교류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주요 선진 국가와 아시아 국가로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크다. 공연예술 통계를 보면 국내단체 공연 횟수 447회중 유럽 194회, 아시아 154회, 북미 65회, 남미 25회로 유럽과 아시아가 78%나 차지하고 있다[1]. 부산지역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국제문화교류의 지역 확대와 다변화로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중앙과 지역과의 협력체계구축이 미흡하다. 현재 중앙정부중심의 국가 간(nation to nation) 문화교류에 주목하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주체라고 할

1) 정정숙, 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보완 작성

수 있는 지역문화인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 국제문화교류지원사업 역시 수도권의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국제문화교류지원의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원활하고 활발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교류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컬 시대의 교류주체인 지역 간(local to lacal) 문화교류사업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발굴이 요구된다.

Ⅲ. 글로컬 시대 지역 문화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1. 국제문화 교류사업의 지역적 특성 및 사업지원 확대

지역의 국제 문화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지역문화 교류 및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교류주체별 역할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중앙과 지방정부)에서는 국가 또는 도시 간 문화행사 및 전반적인 교류 지원업무를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차원에서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문화교류 사업을 수행해 가는 이원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지원 사업의 경우 '팔길이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 민간영역의 전문성과 자율적인 교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문화교류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류전- 교류과정-교류 후 단계별 추진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국제교류전 단계에서는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전문화,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교류과정에서는 자율적인 교류사업을 위한 간접지원, 정부 또는 교류 주체 간 협력, 교류대상지에서의 기획자와의 협력, 교류 후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결과보고를 통한 지역사회 피드백 등 교류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도시권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했으면 한다. 최근의 도시권(city-region) 논의의 확산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광역화됨에 따라 상호 교류

등 연계성이 높은 시·군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동남권의 3개 시 도(부산, 울산, 경남)는 인근 일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큐슈-동남광역권 협력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일도시를 넘어 권역화된 문화협력사업을 위한 광역권단위의 문화협력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나 문화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광역지역문화재단협의회 구성처럼 지역단위를 넘어선 협력운영체를 통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이관하여 지역단위의 문화교류가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중심 교류사업에서 지역중심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 간 문화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발의중인 법안의 경우 이병석의원안에는 제13조 협력활동 지원으로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시책으로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종환의원안에는 20조 지역문화진흥원 설립·운영, 7항에 국내외지역문화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명시화하고 있지만 지역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과 권한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 지원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문화교류사업은 수월성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고, 탁월하고 월등한 기량을 가진 문화예술인들만이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심어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예술 정책은 '생활의 문화화'와 '문화의 일상화'로 귀결되고 있다. 문화교류를 생활 속 문화확산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향상을 꾀하는 문화예술 역량강화와 더불어 아마추어 예술가, 학생, 시민들의 해외문화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다 낮은 차원에서의 문화교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문화협력사업을 위한 지역문화활동 여건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문화 교류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 육

성방안[2)]'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 간 또는 지역과 국제 간 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에 앞서 지역 문화활동 여건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지역 문화활동 여건개선은 지역의 특성이나 특화하기 위한 단순한 예술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창출하거나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고 광역문화재단 스스로 지역사회를 기획하는 사업이다.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의 문화주체들이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여건개선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지적으로 동의한다.

지역문화 활동 여건개선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역문화예산 확보의 문제이다. 현재 국내 문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문화 예산의 수도권 집중이다. 매년 수도권이 전국 단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70~80%를 차지함으로써 지역의 강력한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국 단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 제도는 적정 기준에 맞춰 지역별로 지원금을 배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을 통해 문화단체나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역문화지원의 당위성은 문화다양성에 있다. 문화다양성은 지역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이자 창의력 있는 문화 활동의 근거이다.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하여 지역문화예산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공간활성화 사업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대안공간 반디가 문을 닫았다. 반디는 지역미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미술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1999년 섬의 연장선에서 지속해 왔던 반디는 전시, 교육 뿐 만 아니라 신진작가 및 기획자 발굴, 세미나, 작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자생적인 미술담론을 생산하는 공간이었다. 부산에 방문하는 미술인들이나 외지의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미술의 거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교류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육성방안, 2011

점공간이자 지역문화의 건강한 담론을 생산하고 교류하는 진원지 역할을 했었다. 반디의 사례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간 지원사업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역 문화공간 거점화 및 활성화로 문화교류 발신지 역할 강화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의 확대를 위해 예술창작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활동 거점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의 다양한 창작공간을 문화교류 발신지로 활용하여, 교류작가들의 자유로운 문화활동과 작품전시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아가 문화교류사업 결과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작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이나믹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외국예술가들과 문화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부산지역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아지트, 오픈스페이스 배, 꽃마을 아트스튜디오 등이 있다. 지난해 청년문화수도 사업으로 진행된 회춘프로젝트의 서브컬처네트워크 워크숍은 청년문화와 사회적 이슈의 결합, 공연예술 지역 간 교류를 넘어서는 노력을 하였다. 홍콩(우퍼튼, Wooferten)과 일본(마츠모토 하지메, 쇼셜키친) 등 인디문화의 국제간 협력사업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 간 이해를 돕고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단계적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획된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벌은 '사운드박스 스테이지', '엘렉트로닉박스 스테이지', '워터박스' 등 3개의 무대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컬처웨이브'란 부스를 통해 관객과 아티스트가 소통하도록 했다.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를 중심으로 한 부

산-후쿠오카 간 문화교류사업 '왔다갔다 페스티벌'도 글로컬 시대의 지역문화교류사업의 대표 사례이다. 이 페스티벌은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두 지방도시의 예술가들이 번갈아 오가며 전시와 합동공연을 벌이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로 2011년 후쿠오카에서 작품활동을 진행하고 후쿠오카미술관에서 전시에서는 진행된 예술교류사업에는 후쿠오카 시민 1,500명이 관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2년에는 후쿠오카 지역 예술가들이 2주간 부산에 머무르며 작품활동을 했고, 또따또가 갤러리와 부산시내 카페 10곳, 중구 40계단 · 소라계단 · 반달계단 등 야외전시장 9곳에서 작품을 부산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러한 지역문화거점을 활용한 교류사업들은 부산을 넘어 국내외 문화예술가를 초청하고 교류해 부산을 지역 문화교류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사업들이다. 소개된 성공사례에서 보듯 지역 문화공간을 거점화하고, 창작 레지던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공간은 창작활동의 거점이자, 지역 작가들의 교류공간으로 문화발신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4.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지역 간 문화교류사업을 위해서는 문화교류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유능한 문화인력이 존재해야만 한다. 문화예술인의 국제교류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류도시의 정보 부재와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문화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대학 또는 지역문화재단 협력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국제문화교류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실질적인 문화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 교류를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문화기획자 양성으로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문화교류 아이디어개발, 다변화된 지역 교류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의 아시아레지던시 파견사업에서도 팀별 코디네이터 3개월 활동비를 보장하고 있다. 해외 레지던스 파견사업은 해외레지던스의 정보 수집 및 통역, 국제적 예술 조류의 탐색과 창작 경향 파악 등을 위한 코

디네이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국제교류를 전담하고 기획하는 문화인력을 두어 일회성을 넘어 지속적인 문화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사업의 결과는 성과자료집,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상호정보공유, 네트워크 형성 등 피드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류사업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해외문화교류 및 협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지역문화 창조포럼 영남권 부산

지역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부산문화재단 주관 2012 ARKO 미래전략포럼 준비소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